

공무원 인권교육을 왜 하는가?

세계적으로 인권은 중요한 실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의 제정, 시민참여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구제절차 등을 구성하여 실천하고 있다. 또한 조직내 주요부서 담당자들로 인권행정TF를 구성하여 행정전반에서의 실천력을 증대시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업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공공영역 전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서의 실천이 필수 항목을 떠오르고 있다.

현 공무원 인권교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1994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 선언 이후, 단계적 인권교육이 전개 확산되고 있다.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 계획(2010~2014)에서 규정하고 제3차 계획(2015~2019)에서도 재확인하고 있다. 행동계획에서의 기준은 직무형 훈련 정책, 국가훈련 체계 구축, 직무 교육, 참여기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 인권교육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담당자의 역량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역량강화를 고민해야 한다. 담당자 대부분 인권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와 체계적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이다.

- 1) 공무원 인권교육이 무엇이며, 2) 공무원 인권교육의 내용과 목적은 어떠한가 하며,
- 3)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자는 4) 공무원 인권교육 담당자들의 인권교육 기획 역량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박근덕

공무원 인권교육 길라잡이

박근덕·김명랑 지음

